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불한학과 교수 스탠퍼드대 방문학자

천안함 사태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등으로 한반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반도 긴장구조는 남과 북 모두에게 부담이다. 남측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 평화관리가 중요하고, 북측도 6자회담 재개 등 대외관계 확장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이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올해 신년공중사절을 통해 “대화과 협력사업은 적극 추진시켜나가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당국의 대화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대화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 열린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이 결렬된 이후 리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

사연습, 표류 북한주민들의 송환문제, 대북전단 살포 등을 둘러싸고 남북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남북당국의 대화의지에 따라 연초 잠시 갈등을 풀 조짐을 보이던 남과 북이 다시 갈등을 되풀이 하는 데는 대화를 위한 신뢰를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화다운 대화와 이뤄지려면 전제조건이 충족되거나 조건 없는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져 조건 없는 만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화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동안 남측 정부가 제시한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은 비핵화 진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인,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문제는 6자회담을 재개해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천안함 사건은 “반공화국 모략극”, 연평도포격사건은 “위협전만한 무장도발행위”라면서 사과하는 커녕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고 있다. 북한은 3·1절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화제에 대해서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남측은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측

의 대화공세가 식량난 해소를 위한 필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충족 차원으로 보고 ‘진정성’을 의심하면서 전제조건들에 대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무조건적인 대화와 협상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대화의 적기임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려면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제시한 전제조건들이 많아 분위기가 조성도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북측이 핵, 미사일 포기과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 등 전제조건들을 이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남측의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있기까지는 대화다운 대화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북측이 통치권 차원의 결단을 하고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력승계의 불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북측이 먼저 굴복하고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리비아 사태를 목격하고 있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조치를 먼저 들고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UEP)과 관

련한 시설을 공개한 이후 다급해진 미국과 중국은 남북대화를 재촉하고 있다. 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식량지원을 시사하면서 대북정책의 목표를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의식해서 북·미 대화나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먼저 남북대화가 이뤄지길 희망하고 있다. 중국도 6자회담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이 향상되고 있고, 3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와 한국의 ‘기다리는 전략’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황악화를 막기 위해 대화를 추진할지, 아니면 원위를 고수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려야 할지, 남측 정부는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재스민혁명의 민주화 열풍이 북한에도 밀어닥칠 것을 기대하면서 압박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 개입을 통한 상황악화를 막을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통치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리스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에 상임고문 등으로 활동(?)했다는 380여 스님의 명단을 입수했다. 본지는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를 위한 총정, 불교계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발원에서 리스트 공개를 고심했다. 물론 여러 채널로부터 다양한 보도 자체 요청도 있었다. 하지만 리스트의 실명 공개가 불교계에 긍정적 결과만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사실을 한번 더 확인하고, 당사자들의 고백을 조금 더 기다리고자 유보를 결정했다.

명단에는 조계종·태고종·천태종·진각종 등의 핵심인사들이 있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스님들이 상임고문 혹은 고문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의례 그렇듯 명단의 참·거짓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리스트’와 폄비를 이루는 ‘모르쇠’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명단이 회자되자 일부에서는 법적 대응 운

운하는 소리로 들린다. 분명한 것은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들이 거센 반응을 보일수록 종교들의 마음은 더 멀리 떠날 것이란 사실이다. 리스트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수록 불교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비웃음이 커질 것도 자명하다.

종교인이 선거캠프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사회참여’의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사회참여의 대상이 잘못됐다면, 방법이 아니었다면, 대중의 비판이 따른다면 진정회(眞愾悔)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종교인이자.

자성과 쇄신의 5대결사가 명진 스님의 말처럼 쇼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자성과 쇄신을 하겠다면 ‘리스트’를 어떻게 불교 혁신으로 회향할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리스트의 온전한 공개를 기다리며 반야의 취모검을 매만졌을 불자들에게 리스트 공개를 미룬 본지부터 참회 이 회자되자 일부에서는 법적 대응 운

뒷심 키울 수 없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스님들이 자취를 감췄다. ‘4대강 개발 저지 4대 종단 연대회’가 3월 1일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지만, 불교계만 불참했다는 것. 연대회의는 4월 8일 또 다시 사업 반대를 위한 공동 기도회를 준비 중이지만 불교계의 참여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교계는 지난해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한껏 키워왔다. 이 과정에서 문수 스님을 잃었고, 수경 스님을 보냈다.

그런데 2011년 3월 24일 현재, 공동 기도회 참석을 밝힌 스님의 숫자는

50명도 채 안 된다. 4대강 사업 반대를 공식적으로 밝혔던 조계종으로서

는 참담한 숫자이다. 이쯤되면 4대강 사업을 향한 조계종의 변신을 의심하거나, 역량을 비웃을 만한 수준이다.

지금, 자성과 쇄신을 위한 5대 결사와 함께 민족문화수호운동이 진행 중이다. 1080배만 세 번 했다. 지난주만 해도 범야사, 통도사가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치렀다. 앞으로도 10여 곳의 사찰이 결의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반대의 추어 만큼은 민족문화수호운동에서 되풀이되지 않기를 삼보 전에 간절히 바란다.

사부대중 칼럼



이인자 불교여성개발원 승민경 연구회장

한참 전의 일이다. 지금은 불혹을 넘긴 큰아이가 대학을 갈 때였다. 큰아이의 담임선생님은 “아드님이 꼭 그 대학을 가야 할까? 그 대학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면, 어머니 일이 바쁘시니 아이일은 아이에게 맡기고 어머니 일 열심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담임선생님께 아이의 지도를 부탁하는 인사를 남기고 교문을 나서면서 내심 마음이 우쭐했다.

그 후, 아이들의 예비고사 성적이 예상에 못 미쳤다. 철석같이 믿었던 내 아이들의 성적, 나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픔을 가눌 수가 없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마포 강가에 가서 땅을 치고 통곡을 했다.

내 일생동안 여자였기 때문에 당한 무수

한 아픔도 이 아픔과는 비교 할 수가 없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교수 발령을 낼 수 없다는 학장의 말에 전신주 같은 못이 내 가슴에 박혔고 나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 아픔 말이다.

큰아들은 당시 H대학에서 처음으로 만든 학과의 1기 지원자였다. 그 학과는 인문계·자연계를 망라해 인기가 높았다. 지방생들의 예비고사 성적은 2~3점 차이였다. 합격과 불합격의 결정은 5%(30점 정도)의 실기점수로 판가름이 나는 것이었다.

처음생긴 학과였기 때문에 실기고사(석고대생) 준비를 안 한 지원자들이 대부분인 듯 했다.

나의 아들도 그랬다. 예비고사 발표이후 그 학과를 지망한 후, 한 달여간의 시간에 데생을 연습을 했다.

실기고사 시험 보러가는 날, 아들에게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작은 존재인지, 작은 개미보다도 아니 그 보다 더 작고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 맥이 딱 풀렸다. 내가 너무 초라했다. 아들에게는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아들이, 걱정하지 마라. 석고대생은 예술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배운 지도를 크게 확장하고 줄일 때 네모 칸을 만들고 그 안에 선을 그대로 옮기는 것하고 꼭 같은 것이라고 한 말만 잊지 마라”라고 일러 주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리고 아들에게 시험 끝나는 대로 빨리 엄마에게 전화하라고 일러서 보냈다.

나는 안방에 전화 코드는 빼고 문을 잠그고, 큰 교자상을 폈다. 향을 쬐고 타자기를 준비했다. 실기시작시간에 맞추어 타자지에 ‘수험번호 000000번, 이름 000, 0000대학 0000과 합격’이라고 쓰기 시작했다.

실기고사가 끝나기 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썼다. 시험이 끝나는 시간이 막 지나면서 아들이 전화를 했다. “그래 어떻게 그랬니?”라고 물었더니 “엄마, 종이 에 딱 차게 잘 잡았어, 그런데 평선이 석고 뒤에 들어왔어(역광),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광선은 그려 본 적이 없다”고 격응을 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밝게 그리고 얼굴과 옷자락은 전체적으로 어둡게 처리했고 그 속에서 더 어둡고 밝게 처리했다는 아들의 말소리

에 나는 안심이 되었다. 그래, 잘 했어 아주 잘 했어. 빨리 집에 와라. 우리 모자는 전화를 끊었다.

현재, 큰아들은 자기전공에 맞게 문화재청 소속 고궁박물관에서 학예관으로 일에 열중하고 있다.

돌아켜보면, 아들의 실기고사 시간에 합격을 소원하면서 써내려간 그 순간에 합격을 기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글을 쓰던 그 3시간 동안에 나는 간절함도 합격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꼭 합격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었다. 쓰고 또 쓰고 계속 쓰고 그냥 썼을 뿐이었다. 그냥 아무런 마음이 없는 빈 마음의 상태였던 것 같다.

지금 말하자면 공(空), 비어있는 허공, 허공이라는 개념도 없는 그저 공, 그 자체였지 않았을까? 말이 되나? 하여튼 간절함이 간절할 때 그것은 간절함 마음이 아니라 간절함 그 자체이지 않을까? 그것은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아무리 간절함을 강조해도 거기에 이를 수는 없는 것? 마음이 아르고 울고 하는 것은 아직 간절함이 덜 한 것이 아닐까? 간절해 봐야 간절함을 알게 되지 않을까? 글세?

수험번호 000000번 합격...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이시울 현물닷컴 실시간 뉴스 토틀뉴스 불교모달 부디피아 쇼핑몰 현물닷컴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	--	---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전북지사 : (063)910-8977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영구 62천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인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격과정	교육기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수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부교육원

창원 055-543-6155	호남 063-288-5623	대구 053-566-1116	울산 052-260-1037
부산 051-441-0111	경남 055-932-5877	제주 064-755-7588	전북익산 063-854-1060
지리산 063-635-5112	해운대 051-757-9990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인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칭, 각단불공
 - 시달림
 -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요잡(막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사방요신, 도량계
 - 49재, 천도식(시련, 대령, 관육)
 - 사물: 태징, 북, 요령, 목탁
 -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계,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관육바라, 신중작법봉정39위, 육건이, 다계작법, 운심계작법, 법고춤, 괘불이운
- 강주: 교무국장 성우스님
-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불교미술학인모집

- 교육지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 교육과정(2년제)

1-1	1-2	2-1	2-2
• 불화기초(I) 시형초 등극기	• 불화기초(II) 보살초 등극기 사천왕초 등극기	불화그리기 불화실습(I, II)	
	• 채색기법		• 불교미술이론 병행
- 단기기법을 응용한 작품활동도 가능
- 강주: 혜경스님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 공통사항

- 개강일시: 2011년 3월 3일 (수시모집가능)
- 수강료: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총무원(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 접수기간: 상시모집
- 연락처: 054)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